

종교복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I)

-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임상임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강사 김현경

目 次

I. 서론	2) 女子神의 복식
II. 고대 이집트의 종교	2. 성직자의 복식
III. 고대 이집트의 종교복식 고찰	IV. 결론
1. 神의 복식	참고문헌
1) 男子神의 복식	ABSTRACT

I. 서론

종교가 인간 사회에 출현한 것은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이며, 인간은 의도적인 埋葬을 통하여 종교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종교 행위를 시작 하므로서 비로소 동물 세계와는 크게 구별되는 정신 세계를 갖게 된다.

종교란 인류 집단의 최초에 모든 구성원의 관념·감정·전통의 전부를 단체적으로 결합하여 공동 생활, 공동 동작을 취하려는 工作이 부지불식 간에 전개된 것이며¹⁾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이다.²⁾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보편적인 의식주 문제는 그 해결에 있어서 종교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특히 종교는 인류 역사 초기

에 종교 의식과 함께 종교적인 제복을 탄생시켜 복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복식은 종교의 믿음 체계가 인체상에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된 복식으로³⁾ 인간의 儀式 체계가 잘 구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복식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의식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종교복식의 역할은 종교의 제행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여 대부분의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복장으로 의례를 주관한다. 종교복식은 이를 확용하고 의례에 임하는 성직자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며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의 위상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의례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神과 인간과의 상호 작용에 위치하여 神에 대해 봉헌코자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1) 이정립, 「증산사상의 이해」, 인동출판사, 1986, p.31

2) 이규택, 「불교의 진리관」, 경서원, 1982, p.7

3) 권영실, 조우현,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p.678

하는 마음의 가시적인 수단이다.

이와 같이 인류의 정신 세계를 연 종교 사상의 구체적인 상징 수단인 종교복식에 대하여 그 형성 과정을 포괄하여 종교 복식사를 정리하는 것은 복식사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복식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국가를 형성하여 복식을 왕권과 종교적 표현 수단으로 중히 사용한 고대 이집트 종교복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내용은 이집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神과 성직자의 복식을 고찰하여 이집트 종교복식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문헌 자료와 현지 자료를 병행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II. 고대 이집트의 종교

인류의 최고 문명을 개화시킨 고대 이집트는 약 3000년간 31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보통 最古 왕국 및 고왕국(3100~2180 B.C), 중왕국(2040~1785 B.C), 신왕국(1560~1085 B.C) 및 최신 왕

국(1085~331 B.C) 시대로 크게 구분한다.⁴⁾

고대 이집트는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계급 사회와 거대한 문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체제는 매우 보수적이고 고정적이었다. 이러한 불변적 성격은 정치는 물론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 오랫동안 종교는 정치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인 형태와 결부되어 매우 특징적인 고대 이집트 종교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종교는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이집트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엄격한 고수와 전통에 대한 숭상은 문화 발달의 중요한 핵이 되었고 초기 왕조 시대에 형성된 양식이 최후까지 원형 그대로 지속되는⁵⁾ 특이한 이집트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집트 종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지역적 노움(Nome)⁶⁾ 守護神들을 숭배하는 多神教이다. 최상의 主神은 太陽神 라(Ra)이고 그 아래 800 만의 神들이 秘存하였으며⁷⁾ 특히 각각의 노움은 神의 權化로 생각되었던 동물들을 자신들만의 성스러운 神으로 숭배했다. 이처럼 지역과 관련된 동물들은 신격화·인격화가 이루어지며 動物·神·人間의 同形同性的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각자 상징적인 책임 영역을 부여받았다<표 1, 2 참조>.⁸⁾

<표 1> 이집트男神

신의 이름	별칭	책임 영역	다른 신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성
라(Ra)	레(Re) 프라(Phra)	최고의 국가神, 神들의 王, 태양神	슈와 테프누트의 아버지, 셉과 누트의 아들	뱀형상으로 태양 원반을 머리에 쓴 송골매 머리를 가진 사람 : 양크와 홀을 들고 있다.
아몬(Amon)	아멘(Amen) 암몬(Ammon) 아문(Amun)	神들의 王, 풍요의 神	무트의 남편 콘수의 아버지	숫양의 머리를 한 남성상, 사자꼬리 부착
아누비스(Anubis)	안푸(Anpu)	죽은 자의 神	라의 아들	자칼이나 개의 머리를 가진 남성상, 사자꼬리 부착

4) 車河淳, 「서양사 총론」, 探求堂, 1989, p.30

5)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p.13

6) Nome-고대 이집트의 행정 구역 단위로서 오늘날의 주(州)에 해당된다.

7)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p.243

8) 박광숙, 「고대 이집트의 신에 관한 복식」,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24~25

아툼 (Atum)	템(Teme) 툼(Tum)	神의 질서의 창조자	라의 제의와 병합되어 아툼-라가 됨	이중관을 쓰고 양코를 지닌 수염 난 늙은 사람, 사자꼬리 부착
베스 (Bes)	비수(Bisu)	음악, 무용, 化粧의 神, 임산부의 수호신	베세트의 남편	큰머리, 튕방울 눈, 입을 벌리고 수염으로 덮힌 양 볼이 특징, 밖으 로 굽은 다리, 난쟁이 모습
호루스 (Horus)	호르(Hor)	북부 이집트의 神, 세트神의 적대자	오시리스의 아들	송골매의 머리, 오른손에는 생명의 상징인 부적을 들, 사자꼬리 부착
토티 (Thot)	드조우테이 (Djhowtey)	달, 시간, 기록 보관 자, 神의 대변자, 지혜 의 神	이시스의 임신기간중 의 보호자, 호루스의 상처 치료자, 마트의 남편	따오기의 머리를 가진 남성상, 그 머리위에 초승달과 원반이 놓여 있음, 사자꼬리 부착
프타 (Ptah)	프다아 (Phthah)	다산의 神, 職人의 수 호신	세크메트의 남편	작발머리에 미이라 모양의 관에 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 손에는 「드체드」상징과 활을 가짐
오시리스 (Osiris)	우시레(Usire)	풍요의 神, 재생, 부활 의 神	누트와 겐의 아들, 호 루스의 아버지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와 도리 깨를 들고 있으며 머리에는 「아테 프」관을 쓰고 있다.
세트 (Set)	세드(Seth) 세테크(Setekh)	上이집트의 主神, 폭 풍우의 神	오시리스의 형제	사냥개의 몸, 비스듬한 눈, 사각형 으로 잘린 귀, 길게 갈라진 사자 꼬리
콘수 (Khonsou)	콘스(Khons) 켄수(Khensu)	달의 神, 마귀를 쫓는 神, 질병 치료자	아몬과 무트의 양자	도리깨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어 린이 모양의 옆으로 드리워진 머 리 모양, 초승달과 원반을 쓴, 사 자꼬리 부착
크눔 (Khnoum)	크네무 (Khnemu)	도공, 多産, 창조 神	사티와 아누케트의 남편	굽은 뺨이 난 숫양 머리를 한 남성 상, 나일강의 상징, 사자꼬리 부착
네페르툼 (Nefertum)	네페르툼 (Nefertem) 네페르테무 (Nefertemu)	망우초의 神	프타와 세크메트의 아들	두 개의 깃털관을 쓰고 턱수염 을 단 사람 모습 또는 사자 머리에 사 자 꼬리를 한 형상

<표 2> 이집트 女神

신의 이름	별 칭	책임 영역	다른 신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성
하토르 (Hathor)	아디르(Athyr)	하늘의 女神, 사랑의 女神, 여성의 보호자	누트와 라의 딸	암소나 뿔의 관을 쓴 여성의 모습
이시스 (Isis)	아세트(Aset) 에세트(Eset)	神들의 여왕, 어린이의 수호신, 어린이의 神	호루스의 어머니, 오시리스의 아내	독수리관과 암소. 숫양뿔로 장식 한 원반을 머리위에 지니고 있는 여성상 또는 독수리 관위에 의자 모양의 장식이 있다.
마트 (Ma'at)	마예트 (Mayet)	법, 진리, 정의의 女 神, 죽은 자의 마음의 무게를 달 때 저울의 천칭으로 사용	라의 딸, 토티의 아내	머리에 타조 날개를 달고 뒷발로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성상

네프티스 (Nephthys)	네프하트 (Nebhat)	죽은 자의 내장을 보호하는 神, 여성의 神	이시스와 자매, 세트의 아내	'성의 여주인'이라는 뜻의 두개의 상형문자를 머리위에 가진 여성상
세크메트 (Sekhmet)	세케트 (Sekhet)	전쟁과 투쟁의 처참한 女神	프타의 아내	사자 머리에 태양 원반과 뱀 형장을 씀
세샤트 (Seshat)	세셰타 (Sesheta)	쓰기와 역사의 女神, 시간의 측량자	토티의 제1의 아내	표범 가죽을 입고 손에 필기하는 갈대와 서기관의 파레트를 들고 있다.
부토 (Buto)	에드조 (Edjo)	북부 이집트의 女 수호신, 王의 방어자	후에 어린아이의 神, 호루스의 유모	뱀 형장이나 붉은 왕관을 쓴 여성상
네크베트 (Nekhbet)	네크베트 (Nekhbet)	남부 이집트의 女 수호신	라의 딸	남부 이집트의 하안관을 쓴 여인이나 독수리

이집트 전역을 통하여 숭배된 가장 오래된 神은 매의 얼굴을 지닌 호루스로서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왕들(제 1~2왕조)은 호루스를 모셨다. 그러나 왕국의 수도가 멤피스(Memphis)로 옮겨진 제 3왕조 때부터 이집트의 공식적인 主神은 멤피스의 프타(Ptah)였으며 제 11~12왕조 때에 수도가 테베(Thebes)로 옮겨지면서 테베의 地域神인 아몬이 태양神 라(Ra)⁹⁾와 동일시되어 아몬 라로서¹⁰⁾ 이집트의 최고 主神으로 부상되었다. 이후부터 아몬神 숭배는 태양 숭배와 더불어 이집트 국가 종교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이집트의 多神敎 신앙은 주위의 상징적 자연물로 조형화되어 복식을 비롯한 모든 器匠에 사용되었다.¹¹⁾ 복식에 나타나는 방사선 모양의 주름도 태양을 향한 숭배를 표현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집트 종교의 역할은 파라오의 신격화에 이르러 거대해졌다. 제 5왕조의 시작과 더불어 파라오(Paraoh)¹²⁾는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왕을 파라오라 부른 이집트인들은 왕을 神의 아들이며 살아 있는 神으로 믿고 존경하였다. 왕은 가장 중

요한 종교적 의례를 집전하고 그만이 신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神에게 공물을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성직자이기도 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독특한 내세관을 믿었다. 단지 사람의 신체만이 죽을 뿐 영혼은 새의 형태가 되어 살아 남는다고 생각했다.¹³⁾ 또한 인간은 누구나 몸 속에 영혼과는 또 다른 신비스러운 유령 카(Ka)를 지니고 있으며, 카는 인간이 죽으면 한동안 활동을 그만두고 쉬다가 육체가 미이라가 되어 부활했을 때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었다.¹⁴⁾ 즉 이집트인들은 육체가 있어야만 카가 다시 산다고 생각하여 육체의 보존을 위해 미이라를 만들고 사후 세계를 마련하기 위한 피라미드를 조성하였다.

중왕국 시대부터 死者의 영혼에 대한 최후의 심판 사상이 중요한 사상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내세를 단순히 현세의 삶의 연장으로 믿었던 이전의 사고 방식과는 달리 내세의 응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가 사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9) '라(Ra)'는 '창조자'라는 뜻이며 하늘의 절대적 지배자인 태양에게 주어졌 이름이다.

10) 최현 역, 「이집트 신화」, 범우사, 1993, p.131

11) 정홍숙, "古代 Egypt 服飾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 6호, 1982, p.126

12) 파라오는 이집트의 pero(문집 혹은 왕궁을 의미함)에서 유래하였다.

13) 세르게이토크레프, 「세계의 종교」, 사상사, 1991, p.205

14)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273

는 일정한 의식을 올려 주문을 의을 필요가 있다고 믿어, 그러한 의식을 파피루스에 그림과 함께 기록하였는데 이 문서를 「死者의 책」라고 부른다.¹⁵⁾

이집트의 종교에서 성직자의 역할은 지대했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성직자들의 역할과 권위는 더해졌다. 초기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왕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불과했으나, 제 18왕조 시대에는 성직자들의 권한이 강해져 사제적이 세습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정치적 위계가 더욱 높아지고 그 세력은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멘호테프 4세(B.C 1419~1402년)는 성직자들의 세력을 폐쇄시키고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神에 대한 숭배를 금지시키고 새로운 神 아톤을 섬기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자신이 새롭고도 유일한 神의 최고 성직자라 선언하고 자신을 이큰아톤(‘아톤에게 기쁨’이란 뜻)으로 개명한 후에 수도를 테베에서 아케타톤(‘아톤의 지평선’이란 뜻)으로 옮김으로써, 지금까지의 다신교를 아톤神의 일신교(Monothelism)로 확산되게 하였다.¹⁶⁾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큰아톤은 전통에 집착하는 것을 싫어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등 역대 왕들과는 달리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왕이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모든 분야 특히 예술에 영향을 미쳐 형식주의를 버리고 자연주의적 작품을 개척하도록 하여¹⁷⁾ 후에 이집트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물화의 경우 자유로운 자세에서 보다 구체적인 복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선의 표현이 부드러워졌다.¹⁸⁾

이와 같이 이집트 종교는 지역 의례들을 점차 통합시켜 마침내 이집트 神과 잘 조직된 성직자층을 갖춘 국가 의례로 통일되면서 한편으로 각 지방의 神, 신전, 관습, 신앙을 지닌 별도의 지역 의례를 마지막까지 존속시켰다. 그러므로 이집트

인의 독특하고 찬란한 문명은 종교에 힘입은 바가 크며 복식 역시 종교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Ⅲ. 고대 이집트의 종교복식 고찰

일반적으로 종교는 神과 그를 모시는 사제(성직자) 그리고 신도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그 역할에 따라 복식이 다를 수 있으나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神의 아들로 추앙받는 동시에 종교적 최고 책임자로서 왕은 神이며 동시에 성직자로 일체화되기도 하여 이집트 神들의 복식은 왕의 복식과 동일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종교적인 제복이 고대 이집트의 神과 성직자의 복식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1. 神의 복식

1) 男子神의 복식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주로 다신교로서 태양과 동물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었으며, 동물神들은 차츰 동물의 인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물의 얼굴에 인간의 몸을 가진 형태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인간화된 동물神의 복장은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착용된 복장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집트의 남자신의 복식은 크게 4가지 착장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상의는 벗고 하의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 장식으로 머리에는 독수리관, 뱀 장식, 깃털 장식 등을 썼으며 과시움 목걸이와 팔 장식, 발목 장식 등을 하고 손에는 앙크나 오우아스, 도리개 지팡이 등을 들어 그들의 권위를 나타나게 했

15) 최현 역, 「이집트 신화」, 범우사, 1993, p.133

16) 車河淳, 「서양사 총론」, 探求堂, 1989, p.31

17)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309

18)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1993, p.18



〈Fig. 1〉 아누비스 神(左)

으며 인조 수염을 달고 가발을 쓴¹⁹⁾ 모습이다. 둘째는 짧은 쉬스 스커트만을 착용한 모습, 셋째는 짧은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 넷째는 몸을 수의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감싸고 손만 내놓은 미이라와 같은 형태이다.

〈Fig. 1〉은 신왕국 제 18왕조 투탄카문 왕(B.C 1350~1340)의 무덤 벽화로써²⁰⁾ 神과 왕의 복식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자갈 형상의 아누비스 神은 흰색과 황금색의 주름이 있는 무릎 길이의 갈라 스커트의 下衣만을 입고 그 위에 뒤쪽이 넓은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갈라 스커트는 고왕국 때부터 상류층에서 입혀진 것인데 아누비스 神의 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힙에서 시작하여 뒤로 돌아 한 바퀴 몸을 감은 후에 그 끝을 금실로 주름잡아서 오른쪽으로 위를 향해 끝이 앞 벨트에 닿도록 하여 벨트로 매는 것이다.²¹⁾ 장식은 파시움 목걸이와 양 손목에 팔찌를 하고 오른손에는 영원한 젊음을 의미하는 생명의 상징 부호인 앙크



〈Fig. 2〉 헤후 神

를 들고 있으며 맨발이다.

반면에 투탄카문 왕은 흰색의 네메스(Nemes)²²⁾ 머리 수건을 하고 앞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종아리 길이의 흰색 셰이크-엘-벨레드의 긴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에이프런형 쉐도트와 그 위에 허리 벨트에서 수평으로 색상이 교차되는 화려한 또 하나의 장식인 쉐도트를 무릎 길이로 내려뜨리고 흰색의 샌들을 신고 있다. 神과 왕의 복식은 유사하나 왕의 로인 클로스는 神의 것보다 훨씬 길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Fig. 2〉는 신왕국 시대(B.C 1000년경)의 헤후의 像으로²³⁾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앞 중심에 쉐도트를 착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Fig. 1〉의 아누비스 복장과 유사하다. 가슴 길이의 가발을 쓰고 가는 머리띠를 들었으며 파시움을 하고, 神 특유의 끝이 약간 굽은 턱수염을 달고 있다.

19) 박광숙, “고대 이집트의 신에 관한 복식”,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72

20)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50

21) Payne B., 「History of Costume」, Ha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p.11

22)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1970, p.13

23) 「세계미술대전집 1」, 동아출판사, 1988,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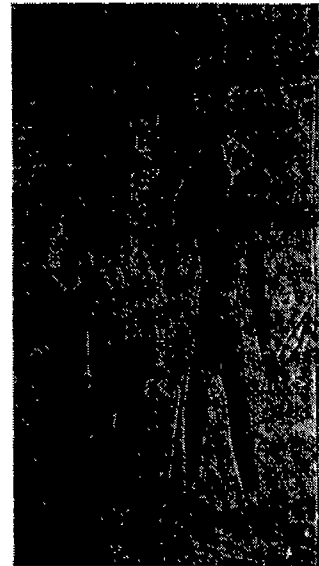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상의는 벗고 무릎 길이의 짧은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의 하의만을 착용한 神의 모습은 이집트 全時代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로인 클로스 형태가 이집트 神의 기본적인 복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남자신의 복장 형태는 이집트 여자의 기본 복식인 쉬스 스커트만을 짧게 착용한 것으로 일반 남자들이나 왕의 복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Fig. 3〉의 중앙은 따오기 얼굴을 하고 있는 토트神의 모습으로²⁴⁾ 좌우에 있는 왕의 모습과 뚜렷이 다르다. 왕은 폭이 넓고 발목까지 오는 흰색의 긴 갈라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반해, 토트神은 황금색의 무릎 위로 올라간 짧은 쉬스 스커트를 입고 있다. 양 어깨 끈이 달린 쉬스 스커트는 깃털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어깨 끈이 달린 가슴 부분과 스커트 밑단에는 다른 천으로 좁게 장식선을 대었다.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 네페르툼神도 장식선을 댄 녹색의 짧은 쉬스 스커트를 입고 있다(Fig. 4).²⁵⁾ 이러한 장식선은 투탄카문왕의 분묘나 아멘오페스 IV세 분묘의 출토 복식에서도 볼 수 있는데²⁶⁾ 가장자리에 장식을 댄 의복의 출현은 이미 이집트 의상이 타민족과의 접촉을 통하여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두 神 모두 허리에는 뒤쪽이 높고 앞쪽이 조금 낮게 허리 벨트를 착용하고 허리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영도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사자 꼬리를 달고, 맨발이다. 神들의 복장에서 허리 벨트에 달아 뒤쪽으로 늘어뜨린 사자 꼬리는 용맹의 상징으로 처음에는 우두머리만이 착용했으나 나르메르 시대 이후 왕의 계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착용되었



〈Fig. 3〉 토트 神(中)



〈Fig. 4〉 네페르툼 神(右)

는데²⁷⁾ 거의 모든 神들의 복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神들이 들고 있는 오우아스는 축제를 의미하며²⁸⁾ 오우아스는 神의 권위를 표현했으나 후

24)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39

25)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39

26) 정홍숙, “古代 이집트에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 6호, 1982,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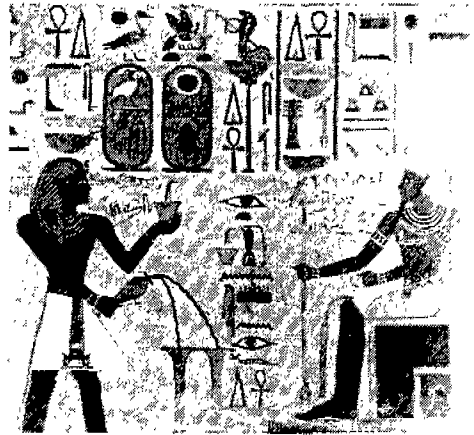
27) 불량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학 2, 1988, p.17

28)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p.13

에 일반인들의 보행용 지팡이로 사용되었다.²⁹⁾ 이 집트인들은 神들이 착용하였던 악세사리 하나 하나를 신성시하였으며 그것들을 곧 神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들은 神의 상징물을 의복에 표현하므로써 자신과 神을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어깨 끈이 있고 무릎위 길이의 짧은 쉬스 스커트는 프타神, 死後와 관련된 오시리스神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남자신들의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어³⁰⁾ 남자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의 기본복인 쉬스 스커트가 이집트의 남자 복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반해, 남자신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은 兩性的 이미지를 자아내 性的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어 神의 특성인 양성을 표현하고자 함인지 연구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평면형 복식을 제작하여 복식의 썸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썸 자체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를 이루었다.³¹⁾ 또 다른 의복형은 짧은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덧입은 형태이다.

<Fig. 5>는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왕국 제 18왕조 투트메스 3세와 아몬神의 모습을 담은 砂岩 부조이다.³²⁾ 경배를 받고 있는 오른쪽 아몬神은 머리에 높은 깃털이 달린 수양관을 쓰고 가느다란 굵은 턱수염을 달고 있으며, 어깨 끈이 있는 쉬스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흰색과 황금색으로 된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고 있다. 녹색의 쉬스 스커트는 깃털 형태의 무늬가 있다. 아몬神은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때로는 숫양, 거위의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네세스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투트메스 3세는 짧은 로인 클로스와 나일강 하류 평야인 델타(Delta)를 상징하는 삼각형



<Fig. 5> 아몬神(右)



<Fig. 6> 카프리神(左)과 라-홀아크티神(右)

에이프런을 입고 앞으로 늘어진 화려한 센도트형 허리띠를 하고 있다. 허리 뒤쪽에는 아몬神처럼 땅에 끌릴 정도의 긴 사자 꼬리가 있고 파시움 목걸이와 양쪽 모두 팔찌를 하고 있다.

네페타리(Nefertari)의 무덤 벽화에서 보이는 再生을 상징하는 풍뎡이 형상의 카프리(Kherpri)神과 上이집트의 神의 상징인 독수리 얼굴의 라-홀아크티³³⁾도 아몬神처럼 녹색의 쉬스 스커트 위에 흰색과 황금색의 로인 클로스를 입고 있다(<Fig. 6>).

29) Payne B., 「History of Costume」, Ha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p.30

30)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275

31) 이민선, 김민자,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한국의류학 회지 19권 2호, 1995, p.343

32) 「세계미술대전집 1」, 동아출판사, 1988, p.26

33)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35



〈Fig. 7〉 좌로부터 호루스神, 크눔神, 하트르神



〈Fig. 8〉 토트神(中)과 오시리스神(右)

〈Fig. 7〉은 람세스 4세의 무덤 벽화이다.³⁴⁾ 배의 얼굴을 하고 있는 왼쪽의 호루스는 녹색의 짧은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가죽을 엮어 놓아 생긴 깃털 모양의 무늬가 있는 황금색의 로인 클로스를 입고 있다. 호루스神은 이집트 왕과 동일시 되어 때로는 상·하 이집트 관을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양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왼쪽 두번째의 크눔神 역시 가로 무늬가 있는 황금색의 짧은 쉬스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녹색의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고 있다. 호루스와 크눔 모두 사자 꼬리가 달려 있고 맨발이며, 장신구도 앞의 神들과 같다.

神들의 복식에서 황금색과 흰색, 녹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집트인들은 여신 하트르의 육체는 금이며 이 신성의 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³⁵⁾ 황금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귀히 여기고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백색은 「聖」을 의미하여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기 왕조 시대의 주된 의복색이었다.³⁶⁾ 녹색은 생명과 젊음을 상징하며, 사막이 많은 이집트에서 오아시스를 떠오르게 하는 자연색이다.

이와 같이 아몬, 카프리, 라-홀아크티, 호루스, 크눔 등은 물론 아누비스, 토트, 소베크 등 여러 神들이 짧은 쉬스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는 등 이집트의 왕이나 일반 남자복식에서는 볼 수 없는 착장을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神들은 뒤가 넓고 앞이 좁은 허리 벨트를 착용하여 옆 허리선이 사선으로 나타나게 표현되어, 신왕국 시대에 요의를 허리선에 맞추어 입지 않고 뒤는 허리선 위로 올라가고 앞은 배가 나오게 입던 방법³⁷⁾과 같다.

〈Fig. 8〉은 따오기 형상을 한 토트神의 모습이 다.³⁸⁾ 토트神은 흰색과 황금색의 길고 짧은 두 개의 로인 클로스를 겹쳐 입고 있으며, 황금색의 파시움 목걸이를 하고 오른손에 앙크, 왼손에는 그가 기록과 神들의 대변자인 것을 상징하듯 깃촉과 펜 케이스를 들고 있다. 토트의 복장은 앞에서 살펴본 두 장의 로인 클로스를 겹쳐 입은 아누비스와 같은 형태로서 다만 긴 로인 클로스를 착용하여 이 벽화가 후대에 그려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오시리스의 복장은 다르다. 얼굴과 손이 녹색으로 묘사된 이 오시리스는

34)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48

35)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p.259

36)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p.264

37) 신상욱, 「서양복식사」, 수확사, 1990, p.16

38)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p.94

양쪽에 물결치는 타조의 깃털을 단 높은 흰색의 “司敎冠”³⁹⁾을 쓰고 있다. 의복은 미이라 형태로 몸을 완전히 감싼 흰색의 수의와 같은 것을 입고, 그 위에 붕대를 감듯 황금색 천으로 여러 겹 감아 어깨까지 완벽하게 감겨진 모습이다. 가슴 부분에는 붉은색의 벨트를 하고 수의에서 나온 두 손은 지고한 왕권의 상징물인 회초리와 오우아스를 쥐고 있어 저승의 왕임을 상징하고 있다. 턱에는 끝이 약간 구부러진 턱수염이 달려 있어 왼쪽에 있는 死者의 직선이며 짧은 턱수염과는 다르다. 왕이 神의 외관으로 나타날 때 굵은 수염을 달았다.⁴⁰⁾

미이라 형태의 복장은 호루스의 네 아들인 두아무테프(Duamutef), 케베세누에프(Qebehsenuef), 임세티(Imsety), 하피(Hapy) 등 사후 세계와 관련된 神의 모습(Fig. 9)에서와 멤피스의 지방신인 프타의 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이라 형태의 복장은 아누비스神이 오시리스의 장례식을 치를 때, 오시리스의 미이라에 천을 감아서 공기가 닿지 않도록 하여 썩지 않게 한데서 유래되었다.⁴¹⁾

2) 女子神의 복식

남자신과는 달리 모든 여신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형상으로 표현되는 이집트 여신들은 몸에 밀착된 이집트 여자들의 기본 의복인 쉬스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으로 대부분 표현되고 상징적인 머리장식으로 구별된다.

〈Fig. 10〉은 고왕국 제 4왕조(B.C 2510년경)에 彫像된 멘카우라 삼신상으로 멘카우라 왕을 중심으로 왼쪽은 여신 하토르, 오른쪽은 팔라 여신이 서 있다.⁴²⁾ 왼쪽 하토르는 긴 머리의 가발을 쓰고 두상에는 여신의 신성 동물인 암소의 뿔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얹고 있으며, 의복은 외곽



〈Fig. 9〉 좌로부터 두아무레트 神, 케베세누에프 神, 임세티 神, 하피 神



〈Fig. 10〉 하토르 女神, 멘카우라 王, 팔라 女神

선을 그대로 드러낸 쉬스 스커트로 추축되는 옷을 입고 맨발이다. 오른쪽 팔라 여신의 의복도 하토르 여신과 같다. 여신들의 의복은 像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아 쉬스 스커트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왕국 시대에 이미 여성 의복의 기본은 어깨와 가슴이 가려지지 않는 한 가닥 내지 두 가닥의 약간 폭이 넓은 끈을 슬립(Slip)형태로 하여⁴³⁾ 가슴에서 발목 길이의 튜닉형⁴⁴⁾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

39) 박광숙, “고대 이집트의 신에 관한 복식”,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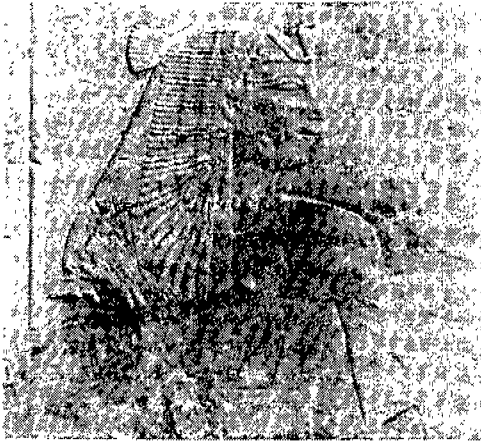
40)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학 2, 1988, p.27

41) 최현 역, 「이집트 신화」, 범우사, 1993, p.175

42) 「고대 이집트 문명」, 도서출판(주) Editions API, 1997, p.59

43) 金京玉, 「西洋服飾史」, 良書閣, 1996, p.12

44) K. M. Lester and R. N. Kerr, 「Historic Costume」, Chas A. Bennett Co., Inc. Peoria, Illinois, 1967, p.14



〈Fig. 11〉 부토 女神

고, 또한 이후의 거의 모든 여신이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쉬스 스커트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벽화나 彫像에서 하토르 여신은 쉬스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으로(Fig. 7) 표현되고 있다.

〈Fig. 11〉은 B.C 2000년경 중왕국 시대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부토 여신이다. 이 여신은 깃털 장식이 있는 쉬스 스커트에 장식된 어깨끈을 매고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하고 있어 왕비의 복식과 다를 바 없다.⁴⁵⁾ 띠에 주름을 잡아 신성한 매나 독수리의 보호 날개와 같은 효과를 내어 종교적인 상징이 장식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왕비들은 남편이 전쟁 중에 있을 동안 남편의 안녕을 위해 독수리 관모를 쓰기도 하였다.⁴⁶⁾

〈Fig. 12〉는 네페르타리 왕비 무덤 벽화의 이시스 像이다.⁴⁷⁾ 질고 밝은 푸른색의 가발과 그 위에 신성한 神의 상징인 소의 뿔로 장식한 큰 원반을 얹고 있어 하토르 여신과 冠의 모습이 같다. 암소 또는 숫양의 뿔과 태양 원반을 쓴 이시스 여신은 하토르의 모습과 종종 일치되어⁴⁸⁾ 나타난다(Fig.



〈Fig. 12〉 이시스 女神



〈Fig. 13〉 이시스 女神

7). 의복은 길이가 가슴 부분부터 발목까지 닿는 정도이고 몸에 밀착된 어깨 끈이 달린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스커트는 벌집 모양의 무늬에 구슬을 달아 장식하였고 가슴과 밑단 부분에 다른 천을 사용하여 장식을 가미하였다. 손에는 오우아스를 들고 있으며 맨발이다. 넓은 장식용

45)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학 2, 1988, p.33

46) Payne B., 「History of Costume」, Ha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p.24

47) 「고대 이집트 문명」, 도서출판(주) Editions API, 1997, p.134

48)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p.256



〈Fig. 14〉 셀켓 女神



〈Fig. 15〉 성직자 복식

목걸이인 파시옴은 神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의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품의 하나로서 단순한 복장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과 함께 권력 표시의 구실도 했기 때문에 때로는 모티브나 색상에 종교적인 의미를 주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⁴⁹⁾ 그러나 이시스 여신은 〈Fig. 13〉처럼 독수리와 뱀으로 장식한 冠 위에 의자 모양의 장식을 얹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토트, 팔라, 부토, 이시스 여신 등은 시대에 관계없이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神性を 나타내는 특색있는 冠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처럼 쉬스 스커트는 신왕국 이전까지 대다수 여신들은 물론 왕비를 비롯한 이집트 여자들의 일반적인 복장이었다.

신왕국 시대 18왕조에 들어오면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동방의 문물이 전래되어 全身을 가리는 로브형의 새로운 의복형이 유행하게 되는데, 신왕국 투탄카문 왕의 내장을 담은 단지를 보호하는 셀켓(Silkot) 여신(Fig. 14)은⁵⁰⁾ 쉬스 스커트 대신 속의 실루엣이 들여다보이는 얇은 칼라

시리스를 우아하게 입고 있다. 머리 위에는 돌핀의 형상을 한 모형이 얹혀져 있고 머리는 가발을 쓰고 있으며 뒤쪽에서 느슨하게 묶은 형태이다. 이처럼 칼라 시리스를 착용한 모습은 다른 여신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복장으로 아마도 셀켓 여신이 타민족으로부터 전래되었거나 신왕국 이후에 부상된 여신이 아닌가 싶다.

2. 성직자의 복식

이집트 미술에는 성직자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예배와 장례식 같은 많은 예식을 그들이 집행했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주로 일반인과 달리 가발이나 머리 쓰개 등을 쓰지 않고 뽕뽕 짝은 머리와 神을 상징하는⁵¹⁾ 표범 가죽을 제사장의 한쪽 어깨에 들렀으나(Fig. 15), 대부분의 동물의 털이나 피혁은 종교상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적 의식때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寺院內에서는 린넨의 걸옷만 착용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에 들어 성직자들은 덜 금욕적이

49) 李熙賢 譯, 「西洋服飾史」, 耕春社, 1984, p.22

50)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Herry N. Abrams, Inc. New York, 1967, p.102

51)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p.259

되어 비치고 주름진 의복과 상류층의 가발을 착용하였다.⁵²⁾ 가발은 태양열과 해충을 막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종교상의 의식에 참여할 때 삭발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두발 정리와 쓰개 역할을 하여⁵³⁾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일부 내세 관념에 집착했던 이집트인들은 평소에 사용했던 가발을 내세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속에 넣는 등⁵⁴⁾ 가발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점으로 보아 성직자의 권위가 높아진 신왕국 시대 이후에는 성직자들의 가발 착용도 일반화된 것 같다.

〈Fig. 16〉은 고왕국 제 4왕조 초기(B.C 2650~2500)시대 성직자 라호텝과 그의 아내 노프레 像이다. 라호텝은 머리를 깎아 삭발이며 神이나 왕과는 달리 가발을 쓰지 않았으며 단순한 목걸이에 간단한 로인 클로스 차림으로 초기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프레는 쉬스 스커트를 입은 것 같고, 그 위에 어깨에서 주름 없는 평평한 솔을 둘러 팔을 은폐한 채, 손만 내놓고 있다. 이러한 주름 없이 평평하게 하여 팔을 은폐하도록 하는 솔은 종교적 예식용으로 사용되었다.⁵⁵⁾

〈Fig. 17〉은 제 5왕조 B.C 2500년경의 성직자 라노페르 彫像이다. 라노페르의 조상은 3점으로 가발을 쓴 것, 쓰지 않은 것 등 입은 옷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동일한데,⁵⁶⁾ 〈Fig. 17〉에서는 상의는 벗고 하의는 짧은 갈라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목이 짧은 장식 벨트를 하고 있다. 장식으로는 목주위에 회미하게 파시움 목걸이를 한 흔적이 보이며 단순한 가발을 쓰고 맨발이다.

앞의 성직자 彫像에서는 성직자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지만, 원래 샌들은 초기 이집트에서는 성직자들만이 착용하였다. 성직자들의 샌들은 주로 파피루스로 만들었으며, 주된 가죽 끈은 두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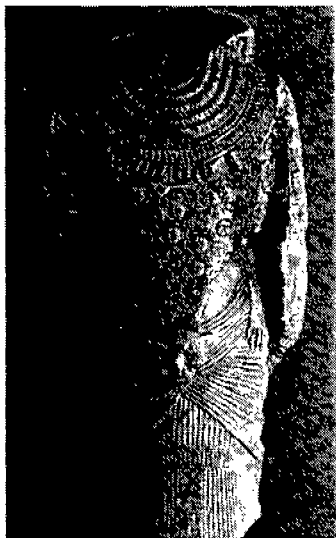
〈Fig. 16〉 성직자 라호텝과 그의 아내



〈Fig. 17〉 성직자 라노페르

제 발가락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였고 뒤축에서부터 발등에 다른 가죽 끈을 연결시켜 뒤꿈치 뒤에서 묶었다. 이러한 샌들은 조심해서 다루어 목적

52)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확 2, 1988, p.12, 15
 53)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확 2, 1988, p.23
 54)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1993, p.2
 55) 「세계미술대전집 1」, 동아출판사, 1988, p.53
 56) 「세계미술대전집 1」, 동아출판사, 1988,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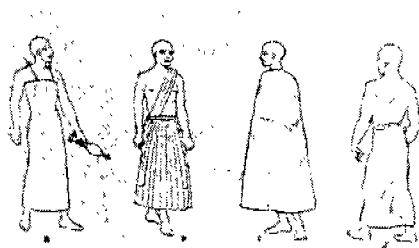
〈Fig. 18〉 성직자의 복식

지에 도착하여 신었고 대부분 직접 가지고 다니는 등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했으며,⁵⁷⁾ 장례식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품목이기도 했다.

프타(Ptah)의 성직자들은 대체적으로 튜닉과 허리 벨트에 동물의 전면 휘장이 있는 고대 왕의 의복이나 표범 가죽을 착용하였는데^{58)·59)} 이것은 동물의 용맹함을 숭상한데서 기인한 것 같다. 〈Fig. 18〉은 제 18왕조 성직자의 복식으로 菱形文樣의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천으로 hips 감싸 스킷트 처럼 착용하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는 표범 가죽의 하이크를 두르고 있다. 하이크 위에는 넓은 칼라형의 파시움 목걸이를 하고 팔의 위쪽에 팔찌를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권위적이며 종교적 감정이 드러나는 복장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물 머리가 드리워진 것은 성직자의 속성이라 생각되며 이 모피는 파라오를 상징했던 성직자를 위해 어떤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착용된 것 같다.⁶⁰⁾



〈Fig. 19〉 여사제
세펜웨페드 2세



〈Fig. 20〉 성직자의 복식

〈Fig. 19〉는 제 25왕조 여사제 세펜웨페드 2세의 像으로, 몸에 딱 달라붙는 쉬스 스킷트를 입고 여왕과 마찬가지로 여사제의 왼손에는 豐作을 기원하는 꽃으로 만든 도리개 모양의 왕궁 의장품을 들고 있어 신왕국 시대 왕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하토르 여신의 상징물인 목걸이를 들고 있다.⁶¹⁾

〈Fig. 20〉에서는 신왕국 시대 이후 주로 사용된 일상적인 4종류의 성직자 의복을 보여주고 있다. a는 몸에 꼭 맞으며 좁은 어깨 끈이 달린 긴 쉬스

57)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7, p.2

58)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67, p.101

59) 李正玉, 『西洋被服史』, 學文社, 1979, p.31

60)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67, p.101

61) 『고대 이집트 문명』, 도서출판(주) Editions API. 1997, p.65

스커트이다. b는 상의는 벗고 하의는 좁은 허리 벨트에 세로 주름의 긴 갈라 스커트를 착용하고, 스커트와 같은 세로 주름이 있는 넓은 발트릭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힙까지 사선 방향으로 착용하여 <Fig. 3>의 왕의 의복과 유사하다. c는 완전히 팔을 덮도록 된 클락(Cloak)이며, d는 허리에서 발목까지 오는 킬트이다.⁶²⁾ 모두 재료는 흰색의 린넨으로 만들었으며 발목까지 오는 길이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성직자의 복장은 귀족 계급으로서 왕의 복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로인 클로스나 갈라 스커트를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의식 때에는 딱딱 작은 머리에 동물의 가죽 또는 옷감으로 하이크 형태를 만들어 덧입기도 하여 위엄을 나타내기도 했고, 일상 때에는 일반인들의 복장을 좀더 검소하게 착용한 것 같다. 그러나 청빈과 금욕의 상징인 성직자의 복장이 신왕국 이후 성직자의 권위가 강해지면서 화려하고 세속적으로 되었으며 의복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IV. 결 론

지금까지 종교복식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복식에 대하여 神과 성직자의 복식으로 분류하여 이집트 종교복식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노움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로서 주로 태양과 동물들이 숭배되었다. 이집트의 왕은 神과 동일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神을 숭배하는 최고의 성직자이기도 하여 이집트 神의 복식과 왕의 복식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복식의 변천성과 종교복식이 갖는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집트의 男子神이 착용한 복식은 크게 4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첫째는 상의는 벗고 하

의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입은 형태, 둘째는 무릎 정도 길이의 대체로 색이 있는 짧은 쉬스 스커트만을 착용한 형태, 셋째는 짧은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착용한 형태로 마치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 넷째는 몸을 수의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감싸고 손만 내놓은 미이라 같은 형태이다.

神들의 장신구로는 가발과 각자 神性を 나타내는 상징적인 관을 쓰고, 왕과 마찬가지로 파시움 목걸이와 목걸이에 비해 단순하나 팔찌, 발찌 등을 하고 대부분 손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앙크와 지배와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오우아스를 들었다. 그러나 귀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 얼굴을 가진 神들은 끝이 약간 구부러진 인조 턱수염을 달아 직선적인 왕의 것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허리 벨트에서 뒤쪽으로 늘어뜨린 사자 꼬리를 달아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모든 神들은 맨발이었다.

이집트 여신의 복식은 왕비 복식과 다를 바 없이 거의 대부분이 두 개의 어깨 끈이 있고 몸에 밀착된 쉬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신왕국 이후 많은 여자들이 칼라 시리츠를 착용한데 반해, 여신들 중에는 셀렛 여신만이 입고 있었다. 여신들의 장신구는 대부분 남자신과 같았고 맨발이었다. 그러나 남자신과는 달리 사자 꼬리가 없었다.

성직자는 딱딱 작은 머리에 가발을 쓰지 않고 재단하지 않은 표범 가죽을 몸에 둘러 금욕적이고 청빈하면서도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물 복장은 특별한 종교 의식에서만 착용되고 평상시에는 일반 귀족이나 왕의 복장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왕국 시대 이후에는 성직자들도 화려하고 다양한 의복과 상류층의 가발을 썼다.

神들의 의복 색상은 주로 태양과 금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생명과 젊음을 상징하는 녹색, 「聖」을

62) Lister, M., 「costume : An Illustrated Survey from Ancient Times to the Twentieth Century」, Plays, Inc. Boston, 1968, p.16

상징하는 흰색이 사용되고 청색, 적자색 등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의복의 재료는 린넨이 대다수로 추측되며, 가죽을 오려 내거나 구슬을 엮어 린넨위에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격자문이나 갑옷처럼 보이는 깃털 문양이 많았다.

이와 같이 이집트의 神과 성직자의 복식은 대부분 이집트의 왕이 착용했던 당시의 의상을 기본적으로 입고 장신구나 종교적인 상징물로써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과 神의 복식에서 다음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이집트의 왕은 쉬스 스커트나 쉬스 스커트 위에 로인 클로스(갈라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대다수의 남자신들은 무릎 길이의 쉬스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둘째, 신왕국 이후 왕은 칼라 시리스를 착용한데 반해 거의 모든 神들은 칼라 시리스를 착용하지 않았다. 셋째, 왕의 인조 수염이 직선인데 비해 남자신의 수염은 끝이 구부러진 형태이고 넷째, 왕의 네 메스와 센도트를 神들은 착용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왕이 신발을 신은 데 반해 神들은 맨발이었다.

신왕국 이후 동방으로부터 수입되어온 칼라 시리스와 튜닉이 神의 의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은 종교복식이 갖는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고유 복식이 이미 神의 복식으로 정체화되어 이집트의 종교복식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 이집트의 종교 복식은 이집트의 기존 복식에 종교성이 표현되어 일반 복식과 다르게 형성되면서 종교복식이 갖는 경직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다양한 장식품과 문양들은 神의 축복을 받고 재앙을 물리치려는 이집트인들의 종교심과 결부되어 이집트 복식을 더욱 종교적이며 풍성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권영실, 조우현,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 박광숙, “고대 이집트의 신에 관한 복식”,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 유송옥, “古代 이집트 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논문집 제 17권, 1972.
- 정홍숙, “고대 Egypt 服飾에 나타난 상징성”, 복식 6호, 1982.
- 이민선, 김민자,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한국의류학 회지 19권 2호, 1995.
- 金京玉, 「西洋服飾史」, 良書閣, 1996.
- 신상욱,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 이규택, 「불교의 진리관」, 경서원, 1982.
- 이정립, 「증산사상의 이해」, 인동출판사, 1986.
- 李正玉, 「西洋被服史」, 學文社, 1979.
- 李熙賢 譯, 「西洋服飾史」, 耕春社, 1984.
-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1993.
- 최현 역, 「이집트의 신화」, 범우사, 1993.
- 비주열,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학 2, 1988.
- 세르게이트카레프, 「세계의 종교」, 사상사, 1991.
- 車河淳, 「서양사 총론」, 探求堂, 1989.
- 「고대 이집트 문명」, 도서출판(주) Editions API, 1997.
- 「세계미술대전집 1」, 동아출판사, 1988.
- Bigelow Marybelle S.,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1970.
-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67.
- Giovanna Magi, 「LUXOR-Valley of Kings-Queens-Nobles-Artisans-」, Bonechi, 1995.
- Lister, M., 「Costume: An Illustrated Survey from Ancient Times to the Twentieth Century」, Plays, Inc., Boston, 1968.
- Payne, B., 「History of Costume」, Ha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7.
- K. M. Lester and R. N. Kerr, 「Historic Costume」, Chas. A. Bennett Co., Inc. Illinois, 1967.

ABSTRACT

The Study About Formation-Process Of Religious Dress And It's Ornament(I) —Focusing On Ancient Egypt—

This study researchs forms of Egyptian religious dress for studying formation-process of religious dress and its ornament. The study goes abreast literature and the very spot's materials also divides god's dress, priest's.

Ancient an egyptian worshiped mainly anim-

als, step by step animal's humanization. So gods were expressed animal's face and human's body.

Egypt god's costume is 1st, to take off upper hament and wear loin cloth on trousers 2nd only to wear short sheath skirt. 3rd to wear shout sheath skirt and to wear loin cloth on there 4th to cover whole body and to open hand like mummy. Egypt goddess' costume is largely to wear long sheath skirt up to the ankle and we can see selkit goddess's figure that wearing kalasiris after new dynasty.

Priest had been a bald head and worn loin cloth and surrounded leopard's skin on there, but after the period of empire, worn a wig and worn less stoically. Also god had hung the lion's tail at symbol of the dignity and priest had put on sandals for a ceremony.